

연중 제21주일

기도서 422면(다해)

제1독서: 이 사 66, 18-21
제2독서: 히 브 12, 5-7, 11-13
복 음: 루 가 13, 22-30

순정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루가 13, 24).

순교는 증거의 삶이다

모름지기 인생은 나그네이다. 신앙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정처없이 발길 닿는 대로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를 알고 있고 분명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예수의 길이다. 뿐만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동행인이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 길은 좁고 험한 길이지만 크리스찬은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생의 노정안에서 만나지는 수많은 갈림길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정표를 확인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편에서의 응답으로 요약된다. 나를 부르심은 당신 생명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로마 4.18)을 가지고 나간다. 순교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증거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 안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위한 피흘림을 일컫는다. 이것은 순교라는 말의 좁은 의미가 된다. 예수는 순교자로서 순교의 원형이 되었다. 또한 예수의 수난에 동참했던 마리아는 순교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증거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 수난을 통한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다.

우리는 또 다시 순교자성월인 9월을 맞이한다. 교회의 뜻은 단순히 순교자들의 죽음을 무릅쓴 결단을 칭송하거나 처절한 죽음을 애석해 하자는 데

있지 않고 순교의 넓은 의미인 예수의 수난에 동참하는 현실적인 결단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만하면 됐다’고 자만하고 안주하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적인 이상을 향해서 끊임없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한다. 출애급의 사건은 과거지사가 아니라 오늘도 연속되는 결단의 삶이어야 한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신앙인은 매일 매 순간 자기 쇄신과 회심이 있어야 한

점이다. “발에 묻혀있는 보화를 얻기 위하여 가진 것을 다 판 사람들”(마태오 13.44)이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무섭도록 계산을 하고 산다. 시간도 돈도…… 모두가 타산적이다. 체면에 붙잡히고 자존심에 목숨을 건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부스러지이고 단물을 뺀 거적일 뿐이다. 이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차마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구가



교회의 뜻은 단순히 순교자들의 죽음을 무릅쓴 결단을 칭송하거나 처절한 죽음을 애석해 하자는데 있지 않고 예수 수난에 동참하는 현실적 결단의 삶에 있다.

다. 순교자들도 우리의 '대동소이한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들도 약점과 단점이 있었을 것이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린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삶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비록 피흘림이 없었던 모든 성인 성녀들도 넓은 의미로 순교자들이다. 일상 안에서 작은 죽음을 살았기 때문이다. 예수의 말씀은 단호하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오늘 순교하려고



정인섭 (안드레아)

오늘 순교하려고 눈을 뜬 새벽에 생각해 보니, 직장일과 레지오 모임과 또 다른 모임 하나와 열세살짜리 소녀가장 결연금 은행에 입금할 일 말고는 없다. 직장일이야 사람의 흔한 일이고 레지오 모임은 내가 즐거워서라도 기꺼운 바요. 또 다른 모임 하나도 두루 만나서 좋은 것, 결연금 넣는 일이 혹 순교 비슷한 것인가 싶다가 그도 가진자의 마땅한 도리이니 오늘 나는 순교할 일이 없다.

그런데 왜 하필 순교인가? 그리고 어찌 순교 못해 안달인듯 이러는가?

적당한 신앙은 안기짐만 못하다. 굶도 하고 점도 치는...

순교는 신앙을 증거하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희생과 부활 때문이고, 하나님께로 온 인류와 만물을 일치시키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주시는 슬기로 헤아려 보아 이 사랑은 내 삶의 시작이자 끝인데, 순교야말로 내게 마땅한 일인 것이다.

아득한 과거 조선시대에만 순교는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부모형제, 친척친지 직장동료의 얼굴과 체면, 생계수단인 직장의 압력, 마지막 목숨까지 내놓아야만 하는 순간은 저 먼 옛날에나 있었지 오늘날에는 어디 그럴 것까지, 그렇게 과격하고 극단적인 것까지 있느냐고 우리는 말하면 안된다.

저 십자가는 무엇인가? 형틀이다. 거기 달린 분 그리스도는 일곱 옷 다 입고 머리도 잘 빗고 얼굴 꾸민, 땀을 포기하지 않은 모습 아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처참한 꼴을 보여주실 것 없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하면 적당히 장식적으로 부드럽게 은게 좋은 거라면서 신앙할 수 없다. 광신이나 극단은 교회 절충주의의 그림자이다. 그러므로 적당한 신앙은 안 기짐만 하다. 굶도 하고 점도 치면서 주기도를 열심히 하는 일이 저로 된 신앙이 아니듯이, 미사 미사대로(미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의 제사이다) 내 미쉬운대로의 생활은 또 별개로는 그럭저럭의 삶은 안된다.

믿음 희망 사랑, 셋 가운데 사랑이 가장 값진 것이지만, 존보다는 사랑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다.

진리보다는 사랑이지만 우리의 이 사랑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

이루갈다와 유효한의 그 끝없는 바보같은 사랑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시한다고 말해 부끄럽지 않게 된다. 왜 그들은 굳이 순교해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년도 루갈다고 했다. 오늘의 순교이백년 전의 순교와는 다르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싶다

피어라 순교자들의 꽃이여

한 사람 이야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을 거북하게 했고 도전을 불러 일으켰던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고 모든게 끝장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생겼습니다. 한번도 죄가 뚫고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의 마음 맨 밑바닥까지

자비하신 전능자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때부터 이 사람은 온갖 죄의 폭력과 악순환을 자기에게서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는 온갖 몰이해와 수난 속에서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다른이들에게 죄를 죄로 되갚지도 않았을 뿐더러 드디어는 사람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겁을 두고 돌고 돌았을

죄와 미움의 폭력이 처음으로 세상에서 정복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양식이 된 그 사람의 바램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를 닮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길을 닮고 그 사람의 기운을 닮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닮고 그 사람의 발걸음을 닮는 것입니다.

신자된 도리라도 해야지요!

■ 신부님들을 사랑해요!

신부님들의 고뇌에 찬 요즘 열 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리의 사람만이 지니는 거룩함도 어려 있다. 그런데 입을 가진 권리행사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신부님들의 고뇌를 팔로만 따지는 일들이 있다. 신자끼리 만나면 짧은 시간이라도 신부님들의 노고와 애씀을 감사고 기도로 도와드리려는 것이 옳지 않을까?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에 몸바친 분들을 위해 해드릴 일을 찾자.

계셨다. 무엇을 받고 계시냐고 여쭙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응, 나는 잘은 몰라. 그래도 나라 잘 되라고 신부님들이 저리 애쓰시는디, 신자된 도리라도 해야지요....."

신자된 도리가 무엇인지를 그 할머니만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또 있을까? 말만은 상황에 따라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현실투신이 다름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뜻을 우리는 잊고 있진 않은가? 믿음은 행동과 함께 가야지.....

■ 교회일에 발벗고 나서자.

본당에서는 일꾼찾기가 쉽지 않다. 교리교사를 할 만해서 이야기해보면 못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을 죽 꺼내고, 모처럼 있는 교육이나 수련회에 꼭 참석하라고 권유하면 지레 방패막이 변명이다. 왜들 그럴까? 영세로 모든 할 일 다 했다는 것일까..... 삶을 잘 정돈하는데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다. 결심해 보자. 교회일에 발벗고 나서기로.....

■ 신자된 도리?

얼마전 저녁 전동성당 마당에서다. 시국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맨앞줄에 70이 넘어보이는 할머니 한분이 열심히 합장을 하고



■ 민주- 그러나 질서는 지켜야

지난 21일 전주 중앙성당에서 열린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미사」는 우리 교회가 마치 분열된 것처럼 떠도는 향간의 소문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확실히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올해 서품되신 신부님으로 부터 은퇴하신 신부님들에게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미사를 봉헌하시는 사제들의 모습에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본 것이다. 헌데 신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미사참여한 3,000여 신자중 100여명도 안되는 숫자이지만 주최측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켜들고 가두시위에 나선 것..... 한밤중에 소란과 교통을 마비시킨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용히 참 기도의 모습, 뭔가 다르다는 외인들의 본보기가 되어주지는 못한 것 같다. 아무리 다양성 안에 일치라지만 주최측과 일치되어 질서있는 기도회가 되도록 마음을 써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민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것이다. 말로는 민주를 외치면서 실제 행동이 교회공동체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어떤 것이 참선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알고 봅시다

■ 앵글영화상영

마르첼리노의 기적



홍보국에서는 지난 7월31일 영화 「마르첼리노의 기적」을 가톨릭 센타 3층에서 상영한바 있습니다. 요즘은 범람하는 저질만화, 공상영화로 명들여가는 어린이들의 정서를 바로잡고자 좋은 영화를 선정 상영하였습니다.

전번 상영시 너무 많은 관람객이 오셨으나 장소가 협소했고 1회 상영한 관계로 많은 분들이 떠돌아가셨고, 다시 상영해 줄 것을 요청해 왔기에 금번 9월2일 토요일 오후3시와 5시 2회로 나누어 앵글상영을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관람비: 어린이 300원
어른 1,000원
장 소: 가톨릭센타 3층 강당

■ 비디오

마더 데레사의 사랑

살아있는 성녀라 불리는 인도의 마더 데레사와 사랑의 선교회 수사, 수녀들이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 삶을 바치는 헌신적인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린 기록영화이다.

38세 되던 해에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확신하고 인도에서 사랑의 선교수도회를 창설한다. 가난하고 병들며,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려고, 거리에서 외로이 죽

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임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참된 나눔의 삶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는 지 깊이 생각하게 해준다.

대상: 모든 신자들, 성소자, 수도자.
상영시간: 55분/컬러
가격: 20,000원
성바로 미디어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 재 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 인 석
수녀원 82-9662

1. 예비자 입교예식: 9월3일 공식미사중 일일인도 인도함시다.
2. 반희창 모임: 9월1일 10시30분
3. 모임: 성령기도회 미사-31일 8시, 사목회분과모임-9월1일 8시, M·E장미모임-9월1일 8시(이치중씨택), 율트레아-9월3일 공식미사후
4. 세계성체대회 참가자 교통비 접수: 7,500원(모자, 방석 포함) 이미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조속한 시일에 납부바랍니다.
5. 건축신입현황: 89년8월20일 현재(사제관및 사무실 신축소요금액 1억4천) 신입108,885,000원 신자수입액88,037,000원 기타 수입32,574,000원 현재지출63,500,000원 현금잔액57,074,000원 부족액20,000,000원 *사제관 신축은 여러분의 작은 정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속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봉헌금: 614,220원 □ 교무금: 401,000원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 석 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 환 용
수녀원 84-2276

※ 9월은 순교자의 성월입니다. 주님의 은총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1. 회의: ①꾸리아-오늘 오후2시 ②사목회-다음주 수요일(저녁 미사후) ③자모회-다음주 수요일
2. 모임: 율트레아 단합대회-다음주일 공식미사후 장소-남판다리
3. 알림: ①성체대회 참가자 신청-금주로 마감하겠으니 속히 신청바람 ②오늘은 교무금 이달분 납부의 날입니다. 정성어린 봉헌바랍니다. *특히 미납되신 분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청년성가대-매주 금요일 저녁미사후 성가연습있습니다. *정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지난주봉헌금: 450,260원 □ 교무금: 300,000원
□ 성모승천축일특별헌금: 263,140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 병 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 광 환
수녀원 87-0229

※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하라.
1. 신축금신입자: 김병양5만원 2. 사목회: 2일(토) 오후8시-사제관 3. 꾸리아회의: 오늘 오후3시 4. 구역장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5. 사목회장 영명축하식: 다음주 공식미사후
6. 세계성체대회 참석자신청: 사무실에 1인 칠천원(선착순 접수함) 일시-10월8일(일) 오전10시30분(미사) 장소-서울 여의도광장 준비물-미사도구, 도시락3개, 당일 오전4시 성당에 집결후 출발
7. 금주전례: 해설-박종구 복사-문치구 이봉연 봉헌-송하중 부부
차주전례: 해설-박연희 복사-김나섭 김광택 봉헌-홍순강 부부
□ 지난주봉헌금: 353,150원 □ 교무금: 359,100원
□ 자선헌금: 29,850원 □ 신축금신입총액: 149,409,836원
□ 올건기금신입총액: 4,305,000원
※ 구속사제단을 석방하라.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 일 균
수녀원 86-3454

1. 평신도강론: 오늘 청소년분과위원장 김동환.
2. 회장단회: 오늘 저녁미사후
3. 삼회: 오늘 오후2시
4. 어머니 성가대 월례회: 9월1일 오전11시
5. 성체강론: 9월2일 저녁미사후
6. 율트레아: 9월3일 공식미사후
7. 사목회: 9월3일 저녁미사후
8. 대건회: 9월3일 공식미사후
9. 세계성체대회 참가신청: 8월31일 마감
10. 미사시간변경: 새벽미사6시 저녁미사7:30분 28일부터
금주전례: 해설-최옥남 독서①경동민 ②김하영 봉헌-정동민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강기연 ②이주자 봉헌-강기연씨 부부
□ 지난주봉헌금: 464,880원 □ 교무금: 1,038,600원

***용머리** 사제관 6-2335 주임신부 조 정 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신축헌금: 미납하신분 납부바람
2. 만물레나회 모임: 오늘 공식미사후
3. 꾸리아 모임: 다음주 공식미사후
4. 청소년사: 28일부터 9월2일까지 서완산동1가 동서면
□ 지난주봉헌금: 300,270원 □ 교무금: 486,000원
□ 신축헌금: 신입액14,775,000원 입금액12,155,00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 종 환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 대 현
수녀원 84-4804

1. 예비자 교리시간안내: ①일-09:30 ②목-오후7:30(9월부터)
2. 모임안내: ①꾸리아-금주수요일 10시30분 ②까리파스회-금주 금요일 오전10시30분 ③안나회-다음주 11시미사후 ④구역 봉사자-다음주 수요일 11시
3. 지속적인 성체조배(365일): 9.8 성모성탄부터 시작 스카폴라 의식 9.3 미사중에 있습니다.
4. 오늘은 교무금 납부 주일입니다.
5. 청소년담당: 금주-쌍용동편 차주-쌍용서편
6. 성모기사회: 성인 9월2일 10시
□ 교무금: 911,000원 □ 주일학교: 14,400원
□ 불우이웃돕기: 18,3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 순 천

1. 제대회: 공식미사후
2. 율트레아: 30일(수) 저녁미사후
3. 성체대회 참가자 접수: 사무실 7,000원
4. 독주기도 봉헌: 1,480단 누계43,315단
5.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
6. 금주전례: 해설-유만순 봉헌-김한철 박봉열씨부부
차주전례: 해설-송봉택 봉헌-양주태 이수복씨부부
7. 꾸리아: 차주공식미사후
□ 지난주봉헌금: 206,030원 □ 교무금: 102,000원

***전동**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주임신부 이 수 현
유치원 84-8347 레지아 83-5085 보좌신부 김 선 태
사제관 82-6232, 82-7245 사목회장 안 득 수

※ 성전보수헌금 바랍니다.
1. 율트레아: 오늘 공식미사후
2. 성마리아 꾸리아: 오늘 오후2시
3. 8월28일: 저녁미사 없음(부산시국기도회)
4. 성가정회: 1일(금) 오전11시 5. 병자봉성체: 1일(금) 오전
6. 재속극라라형제회: 2일(토) 오후1시30분
7. 구역봉사자모임: 3일 저녁미사후
8. 반기도회: 5일-8일 9. 24시간 성체조배: 7일-8일
10. 유아세례: 9일(토) 오후3시
□ 금주보수비헌금액: 398,900원 □ 현재모금총액: 54,285,700원
□ 금주보수비신입액: 800,000원 □ 현재신입총액: 182,257,150원

***호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 창 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 용 무
수녀원 87-0711

※ 9월은 한국 순교자 성월입니다.
1. 축! 영명: 본당 원장수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반석회 요선회: 공식미사후 3. 들담회 월례회: 오늘 오후6:00 4. 여성분과회: 1일(금) 어머니미사후 5. 안심리공소미사: 1일(금) 오후8:30
6. 의지헌금: 총 신입액11,328,000원 현금수입10,398,000원 미수금930,000원
7. 입당식: 9월3일 공식미사중
8. 성체대회 참가 승차권 관매 및 기념책자와 스티카 구입요망
9. 차주모임: 사목회
금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김두길 ②송영이 기도-이종권 백숙명
차주전례: 해설-김인규 독서①조준현 ②백경숙 기도-박종일 안길자
□ 지난주봉헌금: 472,910원 □ 교무금: 698,000원

우리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들...

—보안정국의 속사정—

5공비리 청산

형식적으로나마 5공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 6공의 존재이유와 최대과제는 5공비리의 청산이며 이것은 국민적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5공비리리는 무엇인가.

제2의 군사정권의 출범과 그 주도인물들의 등장을 전후해 자행된 광주학살, 민주인사에 대한 용공조작과 고문만행, 숙청이라는 미명으로 저질러진 공직자 대량해직 등 인권유린과 권력남용이다.

또 갖가지 명분을 내세워 자행된 천문학적 숫자의 정치자금 각출과 이에 따른 부정부패 정경유착이다.

관련자들의 철면피한 강변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5공비리는 이미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심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러기에 '5공비리 특별수사부'까지 설치해 수사를 하는 척 하지 않았던가.

이제까지 상당수의 비리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으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인사와 일부 친인척비리 해당자들이 벌써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5공청산의 종결을 공언하고 있다.

정권담당자들은 "과거를 거론하는 것이 역사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를 말하지 않으려면 먼저 과거의 비리가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한다.

현정권이 진정으로 국가의 안위와 민생의 안정을 바란다면 공

안정국의 안개속에 5공의 온갖 비리와 범죄를 암장하려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전두환씨의 국회중언과 핵심인사의 문책을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6공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양심세력의 규탄과 도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광주사태 처리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대학생들의 평화적인 민주화요구시위를 무력으로 과잉 진압한데서 비롯되었음은 당시의 군부지휘자들도 시인한 바다.

12·12사태로 군부를 장악한 정치군인들이 정권까지 탈취키 위해 시위진압의 구실로 막강한 전투병력을 광주에 투입, 수많은 학생과 시민을 살상케 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켜놓고 이를 계기로 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면서 집권 시나리오의 서장을 전개했던 것이다.

광주사태는 이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개명되었다. 민주화운동에 가담한 학생 시민을 학살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살인범들이며 따라서 광주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최소한 살상명령을 내린 책임자들의 규명과 처벌에서부터 풀려져야 한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전말이 아직은 미진하나 그 개요가 드러난 마당에서 직접적인 희생자와 가족들은 물론 역시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던 광주시민들은 명예회복과 책임자의 처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선지도 이미 오래다.

이땅에서 광주의 비극이 재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광주시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진즉 받아들여져야 했다.

그럼에도 현정권은 피해자 보상법의 입법과 핵심인사의 국회고발로 어물쩍 넘기려는 저의를 감추려하지 않고 있다.

값싼 보상이나 면죄부 부여에 지나지 않을 핵심인사의 사법처리를 해결지으려 한다면 광주문제는 영원한 숙제로 남아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통일문제에의 접근

분단 44년.

일제 식민통치기간보다 8년이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통일의 길은 요원한 느낌이다. 그간 역대정권이 통일을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

말로는 통일이 민족의 지상과업이라면서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만큼 실천에 옮긴 것은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6공을 포함한 역대정권의 통일정책은 냉전논리에 바탕을 둔 정권유지 내지 정권안보의 보조수단으로 세워지고 이용돼왔을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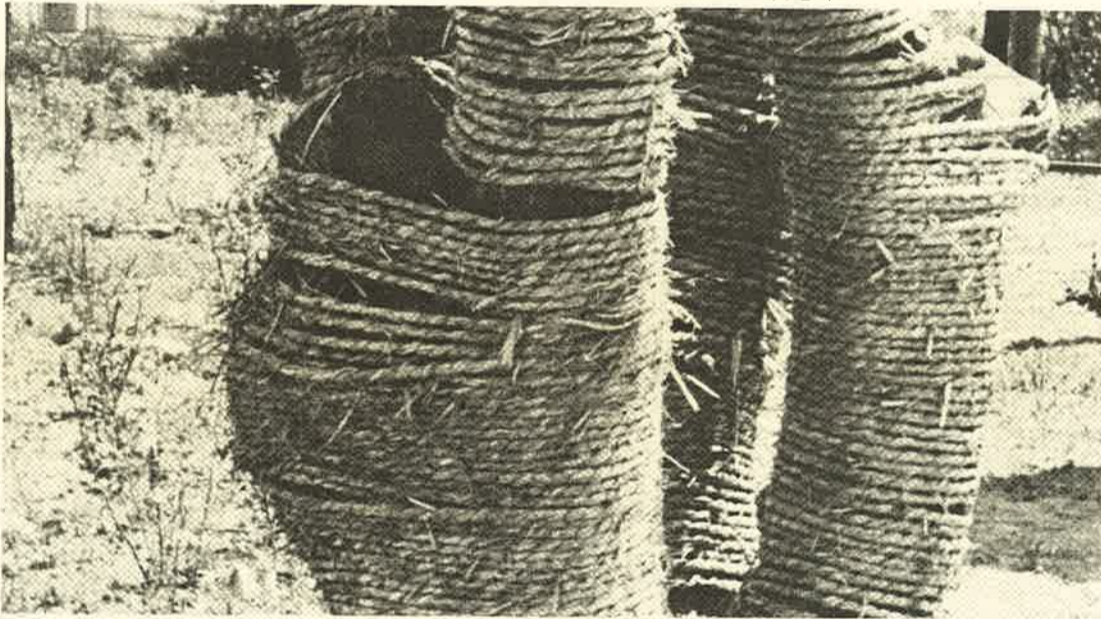
7·4공동성명이나 7·7선언, 정부주도하의 폐쇄적 남북접촉이 없지 않았으나 이같은 선언과 접촉이 통일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북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감만 안겨 주었다.

현정권은 7·7선언과 밀사내왕 등으로 국민들을 통일열망에 들뜨게 해놓고서도 문목사와 임수경양은 '면허'없이 압박했다하여 구속했으며 문규현신부의 파북과 관련해 네명의 사제들을 구속하고 있다.

현정권이 통일문제를 가시적으로 해결해나갈 의향이 추호라도 있다면 '창구단일화'라는 구실로 민중의 통일노력을 탄압치 말고 먼저, 통일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 악법부터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7·4공동성명의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원칙에 입각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남북간 대화재개 및 민간차원의 교류허용, 단계적 군비축소 등 구체적인 통일시책을 차근차근 펴나가야 한다.

(동아일보/신광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1,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를 주제로 하는 세계성체대회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참평화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예나 지금이나 무력과 압제로 유지되는 거짓평화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거짓평화에 칼을 주러 오셨고, 하나님의 정의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참평화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의로 정결된 현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평화의 길일 수 없으며,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온 국민에게 공포의 침묵을 강요하는 공안통치수에서 결코 참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2, 우리는 지난 8월 4일, 7·7선언과 국가보안법 사이에서 발견되는 모순에 대해 태우 대동령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이렇다할 답변을 하지 않았고, 8·15기념사를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전제로 내세워 북한을 남북 체제로 흡수 또는 병합하려는 성체의 통일구상을 제시했음을 밝힙니다. 이는 7·7선언의 구현은 커녕 7·4공동성명 이전의 냉전체제로의 회귀로서 남북이 민족 공동체로서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세계적 추세와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창구단일화라는 명분 뒤에서 이루어졌던 남북통치권력 쟁탈의 비밀 접촉이 진정한 민족통일의 의도보다는 국민의 자유로운 통일운동들을 탄압하고 남북한 정권 모두가 독재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우리는 남북분단이 이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악이요, 이러한 분단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통감하며 하느님과 역사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회개체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입수결양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문규현 신부를 파견한 것은 하느님의 소명에 따른 사제적 양심의 발로였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이 관문적이라는 분단의 이상을 허물고 우리 품으로 되돌아온 입수결양과 문규현 신부를 시대착오적인 냉전 이데올로기로 구속한 것은 우리 사제단의 양심도 함께 구속한 처사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4, 우리는 문규현 신부가 우리 사제단의 파견 결정 이전에 방북계획을 수립했다는 수 사당국의 발표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는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을 유포함으로써 문신부와 우리 사제단을 때어 놓고 사제단과 국민을 이간시키려는 현정권의 악의에 찬 음모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과 안기부가 현행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 접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실질적 위법자를 엄단하겠다는 수사당국이 오히려 실정법을 위반하는 무법자임을 드러낸 처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사당국이 그들의 의도대로 사건을 조작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여론 재판을 이끌려는 속셈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5, 우리는 수사당국이 입수결양과 문규현 신부가 북한에 공작에 돌아나 반국가적 언행을 했다는 일방적인 발표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정권이 이들을 국가보안법의 사슬에 묶어 놓고 수사기관이 밀실에서 강압수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스스로 불신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입수결양과 문규현 신부에게도 변호인권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정상적인 권리가 보장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6,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같은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민족의 분단을 고착화 시키려는 반동원적인 악법이며, 모든 국민을 범죄자와 밀고자로 만드는 반인륜적인 악법으로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악법을 묵인하고 그 법을 따른다는 것은 반공이라는 특종 이데올로기를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세우는 이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이념을 빙자하여 같은 겨례를 적대시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제단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1989년 8월 21일

※성명서는 지면과계상 부발합니다.

나의제언

국가보안법 왜 폐지 되어야 하는가?

수십년전의 양극구조적인 국제권력체제와 냉전 논리에 의하여 뒷받침되던 보안법이 변천해버린 역사의식과 현실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지난날의 기능을 그대로 고집하는 모순과 비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6공화국 출범이후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논의가 공공연히 오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문익목사 등의 북한방문으로 인한 안주도의 사태에 즈음하여 종인 재야 등을 위시한 여러 계에서 보안법폐지요구가 다시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름 그대로 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법인데도 국가안전이 아닌 정의 안전을 위한 경건 보안법으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시절의 유명한 안법 파동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만의 인사들이 보안법의 이름으로 처단되었고 역대집권자의 권력안보를 위한 효과적 무기로 애용되어 온 것이 이 법이기도 하다.

대다수 독재자들은 예외없이 상의 적을 설정해 놓고 이가적을 핏계삼아 국가안보를 명으로 정적과 비판세력을 제거곤 하였는데 우리 역대정부가 요할 때마다 공산주의 위협을 세워 민주적권리와 자유를 억하여 온 것도 유사한 사정이라 할 것이다.

가끔 발표되는 국방보고는 어없이 북쪽의 병력과 화력이 우위를 앞선다는 내용이었고 도발적 전쟁을 일으켜야만 될 수도 있는 북쪽의 정치상황이었으며 나아가 남침처럼 되고 싶으냐는 위협적 문언이야말로 국가보안법존립의 당황적 타당근거로 간주되어 왔던 것이다.

어떠든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즉 공산국가나 공산주의 단체와 관련하여 그들과의 왕래, 만남, 물심양면의 지원, 찬양과 고무 그리고 이와같은 것을 한 사람을 알고서도 당국에 알리지 않는 이른바 불고지 등을 모두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의 국제정세는 2차 대전이후 형성된 미·소 양극주의적 권력구조를 다핵적구조로 바뀌었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대립도 고전적인 흑백논리의 경직성을 잃게 되었다.

이제는 미·소 호령에 겁낼 나라도 없고 나라의 이해관계도 없이 무슨 「주의」가 다르다고 싸우

려는 어리석은 민족도 없다는 이야기다.

나아가 우리의 통일정책도 또한 획기적 전환을 맞고 있다.

북진통일 혹은 UN감시하 북한만의 총선거 등 귀에 익은 정책 구호들은 우리만이 유일합법정부이고 북한은 나라가 아닌 불법적 반도단체라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들과의 모든 관계는 범죄가 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7·7선언으로 북한을 우리와 동일한 성질, 대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리정부의 이같은 정책전환은 동서독일의 관계모형이 주는 시사과 국제정치 상황변화에 따른 것으로 기술 통신 체육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 비군사적분야에서 누적된 이질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려는 지향을 표명한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이와같은 변경된 북방정책에 따라 공산국가들과 관계의 개설 내지 개선을 꾀하고 있고 북한과의 접촉도 활발하게 시도

고 의연히 지난날의 기능을 그대로 고집하는 모순과 비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입수경양과 문신부님의 북한방문의 위법성 여부를 살펴 보자.

이것은 대통령의 7·7선언 취지에 부합되는 행동이었고 보안법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폐지될 운명의 법이므로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지 않을 것이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정적과 비판자들을 제거하는

하고 오히려 가치부정적 기능을 할 뿐이므로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철학적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요컨대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은 위법은 아니지만 즉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 정의감과 모순되므로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법기관들은 법의 형식논리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실질적 정의와



◀ 문규현 신부 북한파견과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병준(좌) 신부와 남국현 신부가 경찰에 자진 출두하고 있다.

동한 지위에 있는 실체로 인정하였고 양자의 관계는 적대가 아닌 공존임을 명백히 하였다.

“남과 북의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등진 채 서로를 대결상대로 여겨오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학자 체육인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하는 중인데 이같은 일련의 사정들이 앞에 말한 보안법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요즘의 끈덕진 보안법폐지론은 자연스러운 사리가 되는 것이다.

수십년전의 양극구조적인 국제 권력체제와 냉전논리에 의하여 뒷받침되던 보안법이 변천해버린 역사의식과 현실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남용되어온 악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법과 양립될 수 없는 정책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로 폐지되지 아니하는 한 이법은 아직도 실정법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는 것이 법률해석이다.

다만 이법은 이미 사회규범 본래의 목표인 정의를 실현하지 못

합목적성에 따라서 법창설적인 해석 내지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실정법의 구속을 초월하여 새역사를 창조해가는 선구자로서 순교를 결단한 분들에게 모든 국민의 수공을 모으는 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양상렬)

숲 정 이 산책



물어라! 식식

민심의 「뜨거운 맛」 두려워하길

◆…지난 9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울평협」 임시총회를 취재 보도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국민들을 칠칠(7·7선언)치 못하게 속이구(6·29선언)있어 독재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톡톡히 파시.

대부분 신문들이 평신도 사도직협의회에서 “문신부 파북관련 입장표명 않기로…교회 일치위해 노력”이란 제목하에 사실보도를 했음에도 유독 조선일보만은 사회면 톱으로 “천주교 서울평신도협회 대표 1백명-회장단 「파북유감표명」지지”로 둔갑시켜 사실과 다르게 왜곡보도.

◆…한반도 반쪽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동포들 역시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반공은 극복돼야할 대상



이 지 상상될 대상은 절대 아님에도 위협한 장난을 즐기는 노태우정권이 광주와 5공청산 그리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모든 세력들을 좌경용공으로 조작하기에 급피치.

오랫동안 일반통행적 통치논리로 일률적인 권위주의 명령만이 우리를 짓눌렀던 밀바탕 교육을 「민족·민주 인간화를 위한 참교육」으로 개조해 보려는 교사들의 참뜻을 “탈퇴 몇명, 구속 몇명, 파면 몇명”식으로 세고 앉아 있으니 탄압의 극치.

◆…“전북도민은 뜨거운 꿀을 봐야한다”고 운운한 민정당 김용태의원 망언이 5일 전북일보에 특종보도되자 전북인들의 울분이 견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자 지역차별에 대한 여론이 일파만파.

민정당 안직이면 쌍짓이고 2등국민인가. 민심의 「뜨거운 맛」 두려워 하길.

믿음의 후손 威 글라라 할머니



▲ 동생 함연국 회장님과 부인, 함 글라라 할머니(右)

川군 마산면 판포리이다. 그의 집안은 고조부 威養楚(바실리오) 代부터 천주교를 믿기 시작했으며 丙寅邪獄으로 인해 전가산을 몰수당하고 고조모 姜씨(루시아)는 1년여의 옥살이를 하는 고초를 겪었다.



그간 숨어다니던 威養楚는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박해를 피해 全羅道 鎭安坊으로 찾아들었다. 그는 세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거처를 옮기다가 마침내 魚隱동 골짜기에 정착했다. 그로부터 4대째 후손인 威然國씨(바로 威글라라 할머니의 동생이다)가 1959년 鎭安읍내에 집을 마련해 이주하기까지 魚隱동 마을은 1백50여년간 威씨 일문의 삶의 터전이 되어왔다. 威글라라할머니도 그곳에서 태어나 40여년을 그곳에서 살았다. 첩첩산중이라 글자를 깨우친

믿음의 조상 밑에서는 믿음의 자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일까. 鎭安郡 郡上리 866번지 威글라라할머니. 그는 5대째 天主教를 신봉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주님께 바쳐온 믿음의 후손이다. 79세의 나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정하고 고운 자색은 자랑스런 조상들에 대한 긍지로 해서 더욱 환희 빛난다. 80평생을 동정녀로서 오직 주님만을 섬겨 온 그의 저력도 조

상님들의 신앙의 힘에 의지한 바 컸으리라. 「저의 믿음이야 우리조상님들께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분들은 죽음의 위협과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威 글라라 할머니는 뿌리깊은 天主教성자인 鎭安郡 鎭安읍 竹山리 魚隱동에서 나고 자랐지만 원래 조상님들의 고향은 忠南舒

아이들이 거의 없었으나 그는 어린시절에 신부님께 국문을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소녀시절 「경향잡지」를 통해 독신생활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자신도 평생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모시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그후부터 긴 세월동안 글라라 할머니는 오직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왔다. 너무도 뛰어난 용모로 해서 도처에서 청혼이 쇄도하자 그는 얼굴에 검뎀을 칠하고 다니며 전교에 힘썼다고 한다.

「무식하고 못한 탓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저 마음으로 우리 본당 잘되기만을 빌었지요.」

숨어서 눈에 띄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해 온 글라라 할머니는 신자들이 한명씩 늘어날 때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껏 큰 일 없이 잔잔한 기쁨속에 살아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주님이 함께 하신 덕분」이라며 독신생활을 택했던 자신의 결정을 단 한번도 후회해 보지 않았다고 힘주어 얘기했다.

威글라라 할머니는 현재 30여년간 鎭安성당 사목회장으로 일해 온 신실한 동생 然國씨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요십이(838) 김병오



의족이 있는 장애인 글씨

뿌리를 찾아서

長水郡 長水읍 水分리는 말 그대로 물이 갈라지는 지역이다. 이곳에 내린 빗물이 남쪽으로 흐르면 蟾津江물이 되고 북으로 흐르면 錦江물이 된다. 물이 흐르듯 이곳에 세워진 水分공소는 전라도와 경상도 쪽으로 전교하는 중심지역이 되어 현 장계교회의 모태가 되기에 이른다. 水分공소도 애초에는 丙寅교난(1866년)을 피해 모여든 신자들에 의해 가꾸어진 성당이다. 이곳이 경상도 함양지역과의 경계일뿐 아니라 워낙 오지여서 신자들이 피신하기에 알맞았고 단 경상, 전라도의 교우들과 선을 대기도 편안한 지역이었다. 당초에는 이곳에 인접한 진다리에 6~7호, 막골에 5~6호, 운학동에 10여호가 살고 있었으며 여러 해 동안 최도마 신부나 안토니 안 신부에게 성사를 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당시에는 大邱교구 威陽本堂에 속해 있었는데 갖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1916년 수분신자 7

가구, 송산신자 8가구로 공소 설립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사제의 부족으로 본당설립이 지연되어 경남 함양교회의 이 발도로메오 신부가 진안, 장수, 임실지방까지 겸임



경상도와 전라도교회의 교량역할

“수분공소”

하게 된다. 그후 수분리 공동체는 1926년 정식 명예로운 수분 본당으로 승격됐다. 1959년 12월말까지의 교세통계를 보면 신자수가 220명에 달한 만큼 큰 교회로 성장했다. 이에 분가가 불가피하게

되어 1954년 장계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수분교회는 장계성당에 속한 공소로 되었다가 1977년에 다시 장계에서 장수 본당이 설립, 장수본당내의 공소로 오늘까지 그 신앙의 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지금은 공소이지만 경상도와 전라도를 오가며 교세확장의 교량역할을 했던 수분리 공소는 호남교회사에 한말의 밑알이 되어주었다.

교구소식

1. 전주지구 묘지관리 위원회: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중앙성당 사제관
2. 젊은 성찬제 참가신청: 10월 7일(토) 잠실체조경기장에서 교황님의 주례로 젊은이 성찬제(성체대회)가 열립니다. 초·중·고 교리교사, 대학생, 청년단체 회원들은 이 젊은이 성찬제에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신청은 8월 29일까지 교육국으로 개별 또는 단체별로 신청 바랍니다.
3. 축! 시종직 수여: 박대덕(스테파노)신부, 김영태(도마)노승, 이수현(로렌조)신부, 강명구(돈보스코)고산, 주복성(사베리오)전도사, 신학생 8월 30일 11시 광주가톨릭 신학대학
4.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9월 7일(목) 덕진천주교회 10시-4시 30분 강사: 성태수 신부님(덕진) 이덕근 신부님(금마)
5. 가톨릭 방송안내: MBC 일요일 밤 10시 25분-30분 「일요일명상」
● CBS 월요일 아침 8시 「5분칼럼」
● CBS 매일밤 11시 45분-12시 「오늘을 보내며」
6. 사랑의 씨앗 수녀회 성소피정: 일시: 8. 27일(오늘) 9시 30분-17시 광주시 북구 본촌동 본원(062-525-2004)
7. 테클라 성소모임: 9월 3일 성마로 서원 2층 오후 2시
8. 축! 영명: 8월 28일(성 아우구스띠노) 김영일, 한정열, 이동신부님 축하드립니다.
9월 2일(토) 빈첸시오이사회 오후3시 사회복지회관

내과 전문

위상양 내과의원

위상양 (프란치스코)
김병희 (글라라)

전주시 교사동2가 1-13
(완주농협·우신호텔앞)

☎ 병원 4-1225
☎ 자택 75-0034

천연 진주상과 14K로 만든 성체대회 기념성물

- 예수상, 성모상, 교황상, 진주목걸이 3종류
- 비둘기상, 물고기상, 진주에 큐빅 장식 반지와 목주반지 3종류

※ 공산품이 아니므로 한정된 숫자에서 주문 판매합니다.

● 접수기간: 1989. 8. 21~8. 30까지
● 주문장소: 전동성당 천사의 집 (☎ 82-3105)
남원성당 성물판매소

● 공급처: 다니엘물산(주)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7-3
제성 B/D 103호
☎ (대) 02-718-0121

〈진료과목〉
내과 · 외과 · 소아과
산부인과 · 피부비뇨기과
물리치료

서울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이상재**

전주시 덕진동 1401-19(덕진광장앞)
☎ 75-0550,0551

혈신 얇고 가벼워진 초박형 렌즈

- 140년 전통 서독 칼짜이즈 특약점 (교우특별우대)

전주현대안경원
김문곤(요셉)
☎ 83-6644, 84-3744

■ 정통 이태리품 통가족패션의 성장

- 아동화 ● 일반화
- 케쥬얼 ● 악세사리

카이저 특약점
전주우체국 현대안경원 옆
☎ 83-0598

일본명상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느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느님께 구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 5:14~15

명동피부과의원

송학동 성전신축 - 이리교우 모두의 몫이다

1. 신설 과정
 이리 송학동 성당은 그 신설 정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작년(1988) 1월, 그 분리 결정 발표 했을 뿐 아무런 준가 없었다. 사제관으로 예약한 파트업자가 중간에 도주하고 전건립부지 한평 매입하지 못해 본당을 분할 신설한 것이다. 국 2월 24일 귀국한 초대 주임 태주(알로이시오)신부는 머무 곳 없이 이곳 저곳 더부살이를 야했다. 할 수 없이 신동 사제에 몸 붙여 지내며 3월 21일 설립지 2개월 만에야 창인동 당에서 「신설 첫 미사」를 봉헌했다. 시간은 오후 4시, 이 미사는 5월 5일 성당 부지가 마련고 5월 20일 사제관 아랫층 현리실(약15평)로 이주 할 때가 계속 되었다. 그리고 7월 2일 지 720여평에 건평 80평의 조식 건물인 현 성전을 축성하였

2. 현재의 상황
 현재 송학동 관할 구역은 이리 송학동, 모현동, 오산, 용곡이다. 교적상 신자수는 1,008(89. 8월 현재) 그러나 타지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실제 주신자는 800명 정도이다. 이 50%가 넘는 450명 정도가 주미사에 참여하고 있다. 거의 두가 젊은 층으로 이루어진 사회(회장 오 봉익)가 뚝뚝 뚝뚝 심히 뛰고 있고 신설 본당답게 석 구석 활기에 차있다.

3. 성전 신축 계획
 금년 3월 26일 성전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 동철·야고보) 결성되어 성전 신축을 위한 반 사항을 차근 차근히 추진하고 있다. 대략 결정된 성전 규모는 당 회합실, 수녀원을 포함하여 77평 정도이며 예정 소요액은 약 7억 원. 자금 출처는 역시 신자들이 헌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 브레시디움, 구역별로 기름, 미숫가루 등 가사 필수품을 팔아 신축기금에 보탬을 주자 노력하지만 노력에 비해 성는 저조한편, 그러나 그렇게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



안타깝기만하다. 이러한 열성이 모아져 320세대중 이미 250세대가 신입을 끝냈는데 그 총액은 1억 2천만원이나 된다. 우선 이를 주춧돌 삼아 금년 9월에는 공사를 시작, 1층만이라도 완공시킬 계획이다.

4. 1억 6천만원은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물론 신부와 신자가 한 몫이 되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신부님은 신부님대로 도움을 줄 만한 곳을 찾아 해낸다. 4년간의 독일 교포 사목 기간에 알게 된 독일의 원조 단체인 미시오(Mis-sio)와 쾰른 마인쯔 교구에 도움을 요청해 놓았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신도들은 신도들대로 만나는 타 본당 교우들의 도움을 청해 보지만 오히려 그들 본당 나름의 어려움을 들어줘야 하는 형편이다.

5. 송학동 성전 신축-이리 신자 모두의 몫이다.

이리시의 모(母)교회는 창인동 본당. 1935. 5. 16에 설립되어 55년의 오랜 전통을 가진 창인동

본당은 발전을 거듭하여 1967.

1. 30에는 주현동 성당을 분가시켰고 1984. 1. 28일에 영동동 성당을 신자들의 헌금으로 신축 분가 시켰으며 1986. 1. 22일 신동 본당을, 88년 1월에는 송학동 본당을 분가 시켰다. 불과 5년 만에 한본당에서 세 본당이 분할된 것이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가히 짐작할 만하다. 그런데 바로 그 어려운 본당 분할에 송학동 본당 교우들이 항상 참여하여 온 것이다. 많고 적고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어떠한 그들은 그 어려움을 함께해 왔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이 분가할 때는 모본당인 창인동으로 부터나 다른 본당으로부터 공적인 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물론 뜻있는 교우들의 도움을 힘입어 새 살림 차리는 비품비 6,000만원을 충당할 수가 있었지만(외부원조 2,500만원, 자체부담 3,500만원) 그러나 송학동 성전 신축이 어찌 송학동 본당 신자들만의 일인가? 창인동, 주현동, 신동, 영동동- 어느 성당 하나 자기들만의 힘으로 지어진 성당이 있던 말인가? 모두 교회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

분하거나 이웃 본당의 도움으로 지어졌다. 그럼에도 유독 송학동 본당만 본당 소속 신자들만의 힘으로 성전을 지어내라 한다면 이는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우기 송학동, 모현동, 오산, 용곡리-자타가 인정하는 이리의 달동네 아닌가? 9,000여명 이리 교우들의 송학동 성전 신축 동참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 꼭 함께 해야 하는 의무요 책임이다. 우리의 이웃사랑이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 이듯이.....

송학동 성전 신축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 6억2천만원중 2억6천만원은 교구에서 지원, 대지와 사제관및 현 조립식 성전을 마련하였다. 나머지 3억 6천만원(신축 비품비)중 그 절반인 1억8천만원은 이미 자체로 해결 된 상태(신입액 1억2천만원을 모두 완납할 경우). 문제는 송학동 교우들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나머지 1억 8천여 만원. 이를 어찌 하겠는가? 이 몫은 이리시 9,000교우 모두의 몫이다. 신자 일인당 2만원 꼴이다. 이리시 신자 일인당 2만원씩만 헌금하자. 단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 큰 짐을 그들에게만 모두 지울수는 없지 않겠는가? 또 언젠가 그 본당이 내 본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9천 이리 신자들의 정성이 담긴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싶다. 이는 사도로 부터 이어오는 하나된 우리 교회의 표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차제에 본당 신설에 대한 장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보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조금씩만 도와 주십시오.”

송학동 본당 주임신부님의 찬찬한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 7월2일 축성된 임시 조립식 송학동 성전

동양한의원
 한의사 민 병 부 (스테파노)
 주시 전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한의원 84-2303
 자택 84-2863

정창희 정형외과 의원
 의 학 박사 정창희 (안셀모)
 정형외과전문 이 성숙 (안젤라)
 전주시 전동 1가 192-3 (전동성당 옆)
 ☎ 84-2926
 자택 6-1625

(보건사회부 허가 제210호)
맥코이 이온정수기
 수도직결 순간 이온정수기
 “맥코이 이온정수기가 만든 알카리성 칼슘 이온수는 맛있는 물, 살아있는 물, 의료효과가 있는 물”
 •KBS-2TV : 월~금요일 아침8시30분 생방송 (전국은 지금)에 TV광고 중
 ※교우상담 및 문의전화 환영
 ※직원모집 : 운전면허1종, 오토바이 소유자 (교우환영)
(주)모리아크리스탈 전업본부
 사업본부장 서 동 주 (스테파노)
 전주시 금암동 706-4 (명동시외버스터미널 산당리 2층)
 ☎ (0652) 75-1654, 77-4312

천주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삼희관광(주)
 담당 : 이 정 화 (율리안나)
 해외여행 상담 및 문의
 전화 : (0652) 87-5532 (대표)
 위치 : 전주전신전화국 옆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광명안경원
 박종락 (조화서베드로)
 안화동 (프리스카)
 전주오거리 (신) 서강정형외과 앞 (구) 나정형외과 앞
 ☎ 74-1123, 3-6709

교회의 이모저모

성체대회 - 청소년대회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제44차 세계성체대회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주교구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조출한 성체대회를 10월 1일(청소년 성체대회)과 3일(어린이 성체대회)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게 된다.

성체대회의 주제인 평화의 주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의미를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세가지의 부제를 정하고 있는데, ①너희와 모든이를 위하여 ②너희는 이를 행하라. ③우리와 함께 머무소서가 그것이다.

대회준비 주관부서인 교육국은 지난 3월초에 초중고 현직교사와 교리교사 학생들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부터는 매달 주제와 부제를 따로 결정, 성찬의 삶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왔다.

그 구체적인 준비상황을 보면 대회당일까지 계속될 지속적인운동으로 평일미사, 성체조배, 일상기도의 생활화, 목주지니기 등인데 봉헌문을 작성하여 각자가 기도한 횟수를 봉헌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어온 소규모 행사들로는 성모님께 드리는 글 공모(5월), 북한어린이 청소년에게 보내는 편지 공모(6월), 민족통일을 위한 9일기도(6월) 등이다.

입선작은 6, 7, 8월에 일간지와 ‘빛따라’에 발표했다.

앞으로도 사랑의 저금통 운동을 펼친다. 이 운동은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요청해온 전국청각장애자 750명 가운데 전북지역의 350명을 위한 보청기 구입에 사용될 모금형식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시골본당과 공소에 책보내기, 교리경시대회(8월20일), 성가경연대회(10월초), 가족성찬제(9월말), 9일기도(9월말), 헌혈(대회당일)등도 계획되고 있다.



어른들을 위주로 세계성체대회가 열린다고 볼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준비되고 있는 우리교구의 어린이 청소년성체대회의 의미는 뜻깊은 것이다. 부모들의 관심으로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 전주교구 사제단 주최 —

“이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미사” 성황리에 열려

전주교 전주교구 사제단은 오랜 침묵을 깨고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며 현 시국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지난 21일 전주 중앙성당에서 봉헌된 이 미사는 우리 교구 사제 70여분, 전국에서 오신 사제 130여분 등 200여분의 사제와 3,000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대 미사였다. 김환철 신부(교구장 직무대행)님의 주례, 이병호 신부(광주 가톨릭대학 교수)님이 강론을 맡았다. 이병호 신부님은 이날 강론에서 요즘 시국에 대한 주교단과 정의구현 사제단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의 견해가 다르게 발표되므로 우리교회가 마치 분열된 것처럼 생각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교우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거나 이는 다양한 모습의 표현일 뿐 분열된 모습은 결코

아님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 국가보안법과 7.7선언은 정면 모순되는 법과 선언이니 만큼 7.7선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국가 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법을 폐지 않는 한 7.7선언을 발표할

노태우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범법자임을 환기 시켰다. 시종일관 질서정연한 분위기, 퇴장성가 대신 울려 퍼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노래는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이의 마음을 숙연케 했다.



믿음의 마을 어은 공소에 사랑의 손길을



우리교구의 자랑인 믿음의 마을, 鎭安군 竹山면 魚隱동 주민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7월 16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마을일대가 크나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날 하오4시30분경부터 6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마치 양동이로 퍼붓듯 쏟아져 내린 폭우로 해서 이 마을 39가구 주민들은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재난을 겪었다.

전체 39가구중 2가구를 제외한 37가구가 천주교 신자인 이 마을에서 특히 큰 피해를 당한 경우는 李鴻대(요한), 崔복순(세실리아)부부.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흙이 도랑을 막자 갈 곳을 잃은 물줄기가 이들 노부부의 집을 덮쳐 가옥이 전파되고 당시 혼자 집에 있던 崔할머니는 부서진 집과 함께 물길에 휩쓸려가다 감나무 가지에 걸려 구사일생으로 구조되는 수난을 당했다.

崔할머니는 그때 심하게 다쳐 현재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석축이 무너져 내리며 시멘트 다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어은동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앞에 어떻게 손을 써야 할 지 엄두를 못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신주가 넘어가고 논밭이 떠내려 가고 전기 모터를 이용한 상수도의 파이프가 파헤쳐져 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집안에 물이 차고 피땀흘려 지은 한해 농사가 엉망이 됐을 때 주민들의 심경은 어땠겠는가.

어은동 공소의 사무회장 姜미카엘씨는 「물빠지고 난 뒤 마을의 물골을 보니 살 맛이 싹 달아나더라」고 그때의 상황을 들려준다.

그래도 초저녁에 비가 왔기 망정이지 한밤중에 왔더라면 꿈쩍없이 다 죽었을 것이라고.

마을의 구심점인 공소는 다행히 피해를 면했으나 주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물에 잠겼던 밭에서는 채소가 썩어가고 논밭은 온통 자갈밭이 되어 포크레인이나 동원되면 모를까 피해 복구는 난감하기만 하다.

「허리띠 졸라매고 어떻게든 한해 넘겨봐야지 어찌겠습니까」 허탈한 표정으로 허공에 눈길을 돌리는 이들은 모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다.

근경에 처한 형제들을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겠는가.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절실한 지금이다.

시청각 자료 대여

전주교 전주교구청 홍보국
전주시 서노송동 560-6 ☎ 85-0041

전주 성바오로서원
전주시 서노송동 639-3 ☎ 3-3398

※ 대여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VIDEO



영화 · 비디오 · 슬라이드

영적 삶을 풍요케 하는

- 교리교육용
- 일반감상용
- 그룹대화용

특별집 세계성체대회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 한(韓) 민족의 일치와 화합의 계기로 삼자

대회 때는 '성체성사'라는 말이 없었다. 그때는 오늘날 성체성사를 주의 만찬, 빵을 주는 예, 감사의 예, 에우카리스티아(감사) 또는 아가페라고 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와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어,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는 성체성사가 생활과 유리된 것이 아니었다.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에우카리스티였다.

그러다가 중세에 이르러 개신교가 나오면서 빵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사를 지내는 동안에만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정하다가 차차 그 현존자체를 부인하게 되고, 나중에는 상징적인 의미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빵 안에 그리스도가 현존 하심을 부인하면 자동파문이 된다는 교리를 선포했다. 성체 성혈 대축일도 이때 생겼다.

근세에 들어와 산업혁명과 더불어 유럽에 큰 혼란이 일어나면서 교회 전체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 수세에 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던중 1873년에 프랑스 가톨릭 국회의원 5~6명이 성당에 모여, 성체를 모신 감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정부의 세속주의 정책에 맞서 싸

울 것을 서약한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따미지에 여사가 영감을 얻어,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증거할 단합대회 같은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성체대회는 호교론적이고 방어적인 행사였다. 성체대회의 성격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독일 뮌헨대회 때부터였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살려, 성체대회가 하느님 백성 전체, 인간공동체 전체의 잔치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였다. 공의회의 전례 개혁은 성체신심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감실과 빵과 성혈 안에 계신다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2, 3명이 모인 곳이나 공동체로서 전례를 집전하는 현장에 우리의 함께 계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받아 살려고 하는 공동체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는 사고방식이 생겨난 것이다. 성체대회는 신앙인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로 창조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일치를 지향한다. 또한 그것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세상과의 대화를 촉진하여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내어 돕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열리는 제44차 세계 성체대회의 주제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이다. 따라서 이 행사가 행사로만 끝난다면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쓸데없는 과시나 전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십자가상의 주님을 보라-어느 구석에서 영광과 환호를 볼 수 있는가? 자랑이 어디있고 과시가 어디있는가? 오직 하느님의 길을 걷는 고뇌와 신념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 금번 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는 이 민족

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이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자 애쓰시는 우리 민족의 하느님을 보여주는 대회이어야 한다. 남과 북, 동과 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분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분단을 넘어 하나되게 하는 작은 계기만이라도 되어 준다면 이 대회는 참으로 의미있는 대회가 될 것이다. 하나로 일치된 조국, 참 평화에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 성체성사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인류의 일치와 화합을 이룰 성체 대회를 마련해야 한다. 성체의 신비를 전례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에서 생활로서 증

금번 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는 이 민족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이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자 애쓰시는 우리 민족의 하느님을 보여주는 대회이어야 한다.

거해야 할 교회는 구체적으로 벌이고 있는 한마음 한몸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헌혈과, 입양결연 및 헌미(헌금)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한달 남짓한 세계 성체대회. 행사만을 위한 나눔이어서도 안되고, 거창한 과시를 위한 그 무엇 때문이어서도 안되겠다. 때문에 이 행사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이웃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증거하고 깨우치는 나눔의 초대교회 모습을 되찾는 것이어야 한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성체대회는 신앙인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로 창조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일치를 지향한다



봉헌하셨습니다—치명자산 성지개발



—전주교구 5인 순교자 시복시성 운동및 치명자산 성지개발—

우리교구 5인순교자 시복시성과 치명자산 성지개발의 역사적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훌륭한 순교 선조들을 기리며 현양함은 후손된 우리들의 마땅한 임무입니다. 이 역사적 사업에 동참할 모든 본당 신자들, 단체, 가정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봉헌시는 개인별 또는 구역·단체별로 수집하여 본당 사무실 또는 교구청에서 접수합니다.

전주교 전주교구 시복시성위원회·성지개발 위원회

560-09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 (0652) 85-0041~3